



지자체, ESCO시장 활기 불어넣는다

ESCO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나섰다. 최근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시 청사 남산별관에 대한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을 공고했으며 강남구청(청장 맹정주)은 건물에너지절약을 위해 ESCO협회와 함께 구내 에너지다소비 빌딩에 ESCO사업을 유도하는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러한 지자체의 에너지절약 사업 추진이 지난해 처음 하락세를 보인 ESCO시장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ESCO사업 투자설명회 전경

지난해 ESCO사업 실적은 2006년에 비해 주춤거리는 양상을 보였다.

2007년도 ESCO사업에는 총 1357억원이 지원됐으며 이에 따른 에너지절감액은 연간 445억원, 절감량은 8만 9000TOE로 나타나 1억원 당 자금지원효과는 65TOE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치는 2006년도에 비해 모두 하락한 것.

2006년도에는 1333억원이 지원돼 에너지절감액 연간 602억원, 절감량도 13만3000TOE를 기록했었다.

반면 지난해에는 ESCO사업에 탄소펀드를 활용키로 하는 한편 국내 ESCO들의 동남아 CDM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ESCO 혁신 방안'이 논의돼 시장의 활성화를 장려하는 해이기도 했다.

●서울시·강남구, ESCO사업 추진

이러한 가운데 최근 지자체에서 ESCO시장 활성화를 위한 길을 열고 있어 화제다.

서울시는 건물에너지절약을 위해 에너지합리화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달 20일, 서울시청 남산별관 3개동 등 10개동에 대한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을 공고했다.



▶ 투자설명회



▶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는 건물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화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과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천을 통해 민간부분으로의 확대와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시청 서소문별관 5개동, 을지로별관 2개동, 남산별관 3개동 등 별관 10개동에 시청 별관의 에너지저감과 이용 효율화를 위한 시설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위해 서울시는 각 건물에 냉난방과 급탕설비 등 기계(열)설비와 함께 전기설비로는 수배전·동력설비와 조명설비 등 기타 전력효율을 향상 설비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중창, 단열필름 등 창호 및 단열설비와 옥상녹화, 건물출입시스템, 실내공기 질 개선 등 에너지절약 개선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을 통해 각 동별 에너지 저감으로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10% 이상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또 에너지절약과 이용 효율화에 따라 온실가스저감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위해 서울시는 최근 에너지솔루션즈, 삼성에버랜드, 벽산건설 등 ESCO업체 12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설명회를 가졌다.

이에 앞서 강남구청(청장 맹정주)은 지난달 19일, 에너지절약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ESCO협회와 'ESCO 사업 투자설명회'를 구청 본관에서 개최했다.

이 사업은 강남구에 위치한 구내 연면적 1㎡ 이상의 건물 226개 대상사업장에 건물에너지 절약을 위해 ESCO사업을 적용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이날 설명회는 강남구 내에서 에너지사용량이 가장 많은 8개 사업소 건축주와 8개의 ESCO사업사가 참여했다.

이번 투자설명회에 앞서 강남구는 226개소 중 기초진단을 통해 에너지사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열원장비의 시설년도가 노후된 곳, 시설규모가 크고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곳, 공조기 및 조명등에 절전기기 사용여부 등을 조사해 ESCO사업 추진 사업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각 사업소를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A~D등급으로 구분해 우선순위를 부여, 에너지사용량이 가장 많은 A등급 건축물에 대해 ESCO사업을 우선 실시해 결과를 본 후, B~D등급 순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A등급으로 분류된 ▲한국섬유산업연합회▲호텔 리베라▲그랜드인터컨티넨탈▲삼원철강산업(주)▲한국은행 강남지부▲무역센타 현대백화점▲(주)한화갤러리아▲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대상사업자로 참여했으며 ESCO업체는 ▲벽산건설(주)▲성림산업개발(주)▲(주)에너지솔루션즈▲엘아이지엔설팅(주)▲영평기계설비(주)▲(주)이앤이시스템▲한국하니웰(주)▲(주)화인 등 8개사가 참여했다.



▶ 송필석팀장

강남구 에너지사업팀 송필석 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ESCO사업 참여시설 확대로 강남구의 에너지절감 목표량 조기달성과 에너지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날 열린 설명회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10개 우선사업소 건축주와 벽산건설(주) 등 8개 ESCO사가 참여했으며 직접 면담을 통해 개별건축물에 대한 절감방안을 논의해 ESCO 시장 활성화의 장을 열었다.

●올해 ESCO 자금 1700억원
중소기업 대출 비율 100% 확대

이날 설명회에서 강남구는 에너지절약 시책방향과 ESCO사업 인센티브 등 지원제도 안내 등을 발표했으며 대상건축물별 기초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 설명, 개별 건축물의 분야별 에너지절감 방안 및 사업효과 등을 발표했다.

향후 강남구와 ESCO협회는 효과적인 ESCO사업 추진을 위해 10여개 사업장씩 소규모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예산이 총 6381억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6381억원의 예산은 집단에너지사업에 1100억원,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에 5281억50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ESCO사업에는 총 1700억원이 지원되며 3단계로 분류돼 자금추천이 지원된다.

에관공이 발표한 추천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상·하반기 2단계로 나눠 자금의 50%씩을 지원하던 것을 3단계로 분류해 지원한다.

3월 말까지 신청을 받는 1단계는 ESCO사업 자금의 60%인 1020억원, 2단계는 5월말까지 신청 받으며 30%의 금액 510억원, 3단계(7월말)에는 10%에 해당하는 102억원이 지원된다. 9월말까지 잔여 예산이 발생하면 대·중소기업 구분 없이 접수순으로 지원한다.

ESCO 투자사업 지원율은 지난해 대기업 80%, 중소기업 90%이던 것이 각각 10%씩 상향 조정됐으며 특히 고유가에 따른 중소기업 우대 정책에 따라 모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율이 100%로 확대됐다. 또 우수ESCO 인증업체에 대해 지난해 5%였던 것을 1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을 하며 지난해 추천액 대비 인출실적이 낮은 ESCO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율을 축소해 지원한다. @



▶ 투자설명회 모습